/지역 단신/

완도 평일~소랑 연도교 완공

완도 평일~소랑 연도교 가설공사가 3년여 공사 끝에 29일 완공됐다.

3년 만에 완공된 평일~소랑 연도교는 연장 203m, 폭 10m(접속도로 길이 984m, 폭 8m)로 총 1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도서종합개발 시범사업으로 2002년부터 시행중인 연륙·연도교 건설은 전국 5곳 가운데 전남이 4곳으로 이번에 개통하는 완도 평일~소랑을 비롯해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장흥 회진~노력도, 여수 금오도-안도, 신안 사옥-증도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는 2008년부터 시작되는 제 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는 기존의 생산기반 시설 위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섬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연계한 연륙·연도교 사업 확대와 주민소득 증대 사업이 우선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흥행기기자 redplane@

관광지 거듭나는 마량항

목포해양청, 야외무대·경관조명 설치

어업자원 감소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던 강진 마량항이 관광지로 거듭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어항인 마량항에 국내 처음으로 관광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끝내고 29일 준공식을 갖게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기를 잡고 유통시키는 기존 어항(漁港)의 기능에다 관광의 기능을 더한 것으로 총 112억원이 투입돼 1년7개월만에 완공됐다. 목포해양청은 기존 3곳의 방파제를 대폭 리모델링해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데크시설과 야외무대, 산책로, 야간경관 시설 등을 설치했다.

특히 100m 길이의 '하방파제' 끝 잔교 위에 조성된 300여평의 원형 야외무대는 300여명의 관객이 각종 공연 등을 감상하거나 즐길 수 있는 이른바 '바다위 무대'로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목포해양청 관계자는 "이제 어항도 단순히 고기만 잡는 생산의 기능에서 관광을 더한 복합기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새로 태어난 마량항은 수산물 판매와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나로도매립지 상업지역 재지정을"

3,4블럭 부실 매립 숙박시설 신축 못해

"관광객 편의위해 1,2블럭으로 변경해야"

고흥군 나로도 주민들이 나로도 매립지 상업지역 지정이 불합리하다며 재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고흥 나로도 매립지는 지난 1988년 시공돼 1997년 완공됐으나 해수면이 높아지는 백중사리 때가 되면 바닷물이 범람해 3블록 인근 도로가 물바다로 변하는 등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고흥군은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고 지반이 견고한 1, 2블록은 상업지역에서 제외하고 연약 지반인 3,4블록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준도시 취락지구인 나로도는 총 면적 61만4천㎡ 중 주거지가 36만761㎡, 녹지가 21만7천597㎡, 상업지는 주거지의 9.98%인 3만5천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숙박시설의 경우 상업지역에만 신축이 가능하다.

지역주민들은 사실상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3,4블록에 대한 상업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1,2 블록가운데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내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나로도에 변변한 숙박시설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합리한 상업지역 지정으로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숙박시설 제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또 3,4블록은 바윗덩어리 등으로 매립한 의혹이 제기돼 준공이 연기되는 등 과거에도 문제가 많았다며 매립지 준공과정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반조사를 실시해 부실의혹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흥군 관계자는 "상업지역은 5년마다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근에 공사 중인 해양수산부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상업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천관산 억새 물결 장흥 천관산 일대 봉우리마다 억새물결이 넘실대고 있다. 오는 10월 1일에는 산상축제인 제 13회 천관산 억새제가 펼쳐진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전남 장애인복지관 위탁법인 변경

종사자 43명 전원 사표 강요 물의

나주에 있는 전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법인이 최근 변경되면서 43명 종사자 전원의 사표제출을 요구하는 등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전남재활협회'가 5년간 운영해 왔던 전남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지난 18일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새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남 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을 위임, 현재 김모씨가 인수위원회 대표로 파견돼 새로운 체제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43명의 종사원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토록 강요해 해당 사회복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직원 K모(38)씨는 "전체 종사원에게 일괄 사표를 받은 뒤 선별하여 채용하는 방식을 채택, 뚜렷한 이유없이 10여 명 가량이 무단해고됐다" 며 "이 때문에 9월에 집중돼 있는 장애인을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남도의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 7항에 명시된 '수탁기관에 선정된 뒤 6개월 이내에는 시설장 및 사무국장 이외의 직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종사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협회 관계자는 "새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 재임용의 절차를 밟는 차원일 뿐"이라며 "일부 직원들의 반발에 따라 일단 전원 출근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허수아비 병사 출병이오"

壬亂때 염걸장군 애국심 기려

강진 청자문화제 길목에 재현

임진왜란때 강진출신 염걸 장군이 왜군을 물리치는데 사용했던 허수아비 병사들이 400여년만에 재현됐다. 〈사진〉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부근 해안선에는 300여개의 허수아비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중무장을 한 채 바다를 주시하고 있다. 이들 허수아비들은 강진군이 오는 10월 14일부터 열리는 제 11회 강진청자문화제를 앞두고 염걸 장군의 애국정신과 충효정신을 기리기 위해 행사장 인근 바닷가에 세운 것이다.

강진군에 따르면 1597년 강진만 구십포(현 구강포)에 상륙하는 왜군들을 맞아 염걸 장군은 인근 의병 300여명을 모아 출전한다. 이때 염걸 장군은 바닷가에 허수아비 병사 수백개를 만들어 왜적을 유인, 수천명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는 것.

강진군관계자는 "청자문화제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충효 사상을 심어주고 특히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는 교육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염걸 장군은 1545년 강진군 칠량면 율변리에서 태어나 충무공과 함께 노량해전 등에서 분투하다 거제도 해전에서 동생 염서, 염경, 외아들 흥립 등과 더불어 장렬하게 순국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시의회 시장관사 설계비·차 구입비 승인 졸속"

목포시민단체, 추경 재심의 촉구

목포경실련, 목포환경운동연합 등 목포지역 시민단체가 목포시의회에 추경예산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본보 28일자 14면〉

시민단체 회원들은 28일 목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목포시의회에 '2006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매우 주의깊게 검토해야 할 예산항목을 근거와 함께 제시 했지만 묵살됐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시의회 예결특위는 시장관사 실시설계용역비를 승인하고 멀쩡한 차를 놔주고 새 차를 사겠다는 것을 눈감아 줬다"면서 "특히 관사 설계비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조차 논란이 돼 삭감했는데도 예결특위에서 살아났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성은 물론 국비 확보조차 불투명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이 큰 음악분수대, 유달산 인공폭포 사업 등의 예산을 승인해 결국 의회가 밀어주는 꼴이 됐다"면서 "이번 예산 심의는 졸속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예결특위의 예산심의는 사회적 논란이 큰 예산을 진지한 검토과정 없이 밀어주기식으로 일관했으며 일부 예산의 경우 목포시 집행부가 법률 검토도 없이 올렸거나 절차적 하자를 감춘 채로 올린 것도 있는 만큼 명백히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예결특위는 목포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 767억 원 가운데 0.38%에 불과한 2억9천830만 원을 삭감했으며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시장관사 신축 설계비를 예결특위에서 3천만 원으로 재편성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